"대본 보고 국내서 가능할까 걱정"

SBS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 출연 임수향
"'엔딩 지옥'이라 다음 회 볼 수밖에 없을 것"
美 '제인 더버진' 시리즈 리메이크 작품

임수향

로맨스 코미디를 뛰어넘는 황당하고 유쾌하지만 따뜻한 소동극 SBS 새 월화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가 시청자들을 찾는다.

주연 임수향은 4일 온라인으로 열린 '우리는 오늘부터' 제작발표회에서 "처음 대본을 보고 이게(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걱정)했다"며 "주인공이 뜻밖의 결정을 하고 이를 헤쳐나가는 과정으로, '엔딩 지옥'이어서 1회를 보면 2회, 2회를 보면 3회, 이렇게 다음 회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우리는 오늘부터'는 결혼 전 순결을 목숨처럼 지키던 오우리(임수향 분)가 검진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인해 한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2014년부터 미국 CWTV에서 다섯 시즌에 걸쳐 방송한 '제인 더버진' 시리즈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제인 더 버진'은 인공수정, 마약, 살인, 치정 등 웬만한 국내 막장 드라마를 뛰어넘는 소재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맥락 없는 전개로 유명하다.

연출을 맡은 정정화 PD는 "('제인 더 버진'은) 남미의 '텔레노벨라' 장르를 미국에서 리메이크 한 것인데, 우리나라 막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극적"이라며 "국내에서도 팬이 많은데 '막장 드라마계의 대모'가 와도 (비교가) 안 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드라마를 한국화해서 우리나라 시청자들도 즐길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우리 드라마 역시 매운맛,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독한 맛이 매력"이라고 말했다.

정 PD는 해외 작품을 리메이크하면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고 했다.

그는 "원작에는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자극적인 요소보다는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인물들이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힘의 원천에는 가족이 있다는 점으로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작품을 바꿨다"고 전했다.

정 PD는 혼전순결과 같이 민감한 소재를 다루는 데 따른 부담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템만 놓고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고민 없이 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드라마에서도 혼전순결이 아니라 혼후관계가 맞다는 대사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깊이로 드라마를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우들은 기존 드라마와는 다른 색채의 작품에 대한 설렘과 함께 걱정도 드러냈다. 임수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성훈이 연기한) 라파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인물"이라며 여러 사건에 휘말리지만,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라 그 과정을 사랑스럽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왜 혼전순결(이라는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이걸 지키면서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 라파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우리가 임신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라파엘 역의 성훈은 "아이템적으로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라이트하게(가볍게) 풀어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라파엘의 경쟁자이자 오우리의 오랜 연인 이강재는 신동욱이 맡았다. 홍진윤이 외모 빼고 모든 게 가짜인 여자 이마리, 김수로가 우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막장드라마계 스타 최성일, 홍은희가 오우리의 엄마이자 성일의 첫사랑인 오은란으로 분해 극을 풍성하게 만든다. 오는 9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노래로 들어보는 한국현대사

광주문화재단, 이동순 명예교수 초청 12일 렉처콘서트

한국현대사를 노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두 번째 빛고을 융복합렉처콘서트를 연다. 강사는 이동순〈사진〉영남대 명예교수. 이번 콘서트는 음악 강의와 함께 아코디언 연주가 곁들여지며 (재)광주복지연구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노래로 들어보는 한국현대사'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식민지와 분단, 전쟁 속에서의 역사 이야기, 우리 노래 가사와 곡조에 담겨져 있는 의미 등을 들려준다. 또한 노래에 담긴 역사의 숨결을 비롯해 시인의 문학세계와 대중음악과의 연관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순 교수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1973), 문학평론(1989) 당선으로 문단 활동을 시작했으며 국내 다수 방송사의 가요프로에 출연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개밥풀', '독도의 푸른 밤', '고요의 이유', '우리 시의 얼굴 찾기' 등을 펴냈다.

다음 렉처콘서트는 6월 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박상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장수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문화'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 7일 리움미술관 순회전 강연

김정래 큐레이터 초청

로버트 롱고의 '이 좀비들아:신 앞의 진실'.

전남도립미술관이 리움미술관 순회전 '인간, 일곱 개의 질문'과 연계한 강연을 오는 7일 오후 2시 전남도립미술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20세기 인간에서 21세기 인간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휴머니즘에 대한 작품이 대거 전시된 '인간, 일곱 개의 질문'전의 기획 의도에 맞춰 20세기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상과 인간상을 살피고, 포스트 휴먼이 논의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다양한 동서양의 인간 군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강연은 김정래 독립 큐레이터가 맡는다. 김정래 큐레이터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에서 기획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2018년 국내 최대 규모의 팝아트 전시 '하이 팝(Hi, POP)-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 '마르크샤갈 특별전' 전시 해설 총괄을 담당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솔비, 5~28일 美 뉴저지서 초대전 '허밍' 개최

가수 겸 미술작가 솔비(권지안·사진)가 5~2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파리스 고 파인 아츠에서 여덟 번째 개인전 '체계화된 언어 : 허밍'(Systemized Language:Humming)을 연다고 소속사 엠에이피크루가 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파리스 고 파인 아츠 초대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트페어에서 솔비의 작품을 보고 전시를 제안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솔비는 주제 '허밍'을 통해 타인의 삶을 망가트리는 언어폭력에 대해 고찰했다. 사이버 세계에서 자행되는 악성 댓글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사이버 왕따) 현상을 자기만의 표현법으로 재해석했다. 솔비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뉴욕에서 활동하는 여러 아티스트와 교류했고, 에너지와 영감을 얻었다"며 "언어를 초월해 세계 많은 분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CC, 오월 가족이 들려주는 '오월 이야기' 진행

지난해 진행된 '오월 이야기'

오월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둘러보며 그날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마련한 '오월이야기'는 오는 6월 18일까지 총 30차례 옛 전남도청과 별관 등에서 진행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오월이야기는 민주와 평화, 인권으로 상징되는 오월정신을 확산하고 기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오월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생생히 듣는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 전문해설사와 함께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일대를 둘러보며 공간에 담긴 그날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역사현장 탐방'이 그것.

ACC는 오월행사와 방문객이 집중되는 특별 운영 기간(14일부터 22일까지)에는 매일 시민을 맞이하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하며 ACC 누리집 또는 현장예매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601-426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